

내신·SAT점수 없이 해외 명문대 갈 수 있다!

# 미국 국제학교 특별전형엔 편입 가능 영국 대학예비과정 1년 수료 후 입학

edm유학센터 '세계유학박람회'  
나라별·학교별 맞춤형 전략 소개  
현장서 어학연수 수속시 학비 지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SAT 점수 없이도 영국이나 미국 명문대학 진학 기회가 있다. 대학의 국제학교 특별전형이나 대학 소속 어학원 조건부 입학, 대학예비과정 등 국가나 대학별 전형방식을 잘 활용하면 해외 4년제 대학 유학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dm유학센터는 세계 11개국 100여 개 대학교와 어학기관이 참가하는 제4회 edm세계유학박람회를 내달 2~3일 서울 코엑스를 시작으로 9일 부산 벡스코, 10일 대구 노보텔, 1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dm세계유학박람회는 연간 8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학 박람회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50건의 해외대학 합격자를 배출한 edm유학센터가 주최한다.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영국 QS 선정 상위 대학인 맨체스터대학교, 킹스칼리지런던, 워릭대학교 등을 비롯해 해외 취업에 유리한 조지타운 대학교, 센테니얼 컬리지 등 캐나다 대학 등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명문대학 편입학이나 신입학을 위한 유학생 특별전형 프로그램



제3회 edm세계유학박람회 현장, /edm교육센터

램을 통해 맞춤형 진학 전략을 소개한다. 특별전형의 경우 국내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 등 대학별 선발기준과 절차 등이 상이해 유학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전형과 비교해 선발 인원은 제한적이지만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고르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학들의 국제학교 특별전형을 이용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고, 대학 부설 어학원 조건부 입학을 통해서도 4년제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영국과 호주는 대학예비과정인 파운데이션을, 캐나다는 국제학생 특별전형을 잘 활용하면 국내 수능과 내신, 어학점수 등이 낮더라도 진학 기회가 있다.

박람회에서는 각 나라 현지 대학교 입학담당자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입학 담당자와 국내 유학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방문객의 내신, 어학성적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해 목표 대학의 입학이나 편입학 가능성을 진단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는 최적의 진학 전략을 제시한다.

edm유학센터 권형정 본부장은 "내신과 수능 점수는 물론 SAT 등 점수가 없거나 낮아도 미국, 영국 등 해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학생 특별전형이 있다"며 "국가와 대학별 유학생 특별전형이 다르므로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서는 현지 입학 담당자들로부터 여러 과정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다양한 진학 케이스를 보유한 어학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는 어학연수 수속 시 최대 17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교나 대학원 등록 시 전공별 수속비와 자소서 감수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고교 학점제' 추진 박차를 선도학교 3배 늘린다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구성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 전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오는 2025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청,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과 일반고 대상 학점제 기반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2년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한 뒤 2025년에는 전 과목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도입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수업시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꾸고, 진급이나 졸업 기준을 정하고 수강신청 시스템, 수업·평가방식을 바꾸는 등 중등교육 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 중앙추진단은 이런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종합 검토를 통해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105개교에 도입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354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연구학교 102개교에서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연구하고, 일반계고 178곳이 포함된 252개 선도학교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 혁신 사례를 발굴한다. 이들 학교에는 매년 2000만원~5000만원이 지원된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기능을 개선해 2020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전공심화형·전공융합형 등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을 발굴해 구체화하고, 3학년 2학기를 사회진출을 위한 전환 학기로 학점 이수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반고의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사업에는 올해 66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사업'으로 개편된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인천재능대 송도에 300명 규모 행복기숙사 3월 개관

인천재능대학교는 인천 송도에 300명 수용 규모의 행복기숙사가 3월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개관에 앞서 지난 9일 본관 대강당에서 입사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기숙사 운영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숙사 접수 일정, 방법 등과 입사 관련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처음 선보이는 기숙사 건물과 주요 시설 안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재능대 행복기숙사는 전문대 최초로 송도에 건립되는 기숙사로 학생 편의성을 고려해 계단식 다목적 강의실, 팀



스터디룸, 세탁실, 휴게실, 식당, 매점 등을 갖췄다. 특히 처음으로 도입된 3인1실 구조의 사생실은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해 개인 프라이버시 만족도를 높인게 특징이다.

### 경희대 내일 '글로벌 천연식의약품개발 전략 국제심포지엄'

경희대학교는 경희바이오헬스클러스터 천연물사업기획단(단장 김호철)이 13일 오전 9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에서 천연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글로벌 천연물 식의약품 개발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희바이오헬스클러스터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의생명과학 분야 천연물 융합 연구를 통해 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고 관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천연물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적 천연물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평균 25% 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건강식품 시장과 지난 10년간 110조원 규모로 3배 성장한 중성약(한약을 체형화 한 의약품) 시장 진출 전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심포지엄 참가는 무료며 이메일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 성신여대 '창업지원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주관기관 선정

성신여대는 2018년 스마트창업터 창업지원사업 최우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전국 19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주관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스마트창업터 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이

다. 평가에서는 수혜자 만족도, 사업 운영 실적, 창업 기업 매출, 고용 등 창업지원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성신여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창업 아이템과 창업 기업 발굴, 교육을 통한 건강한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객만족 조사 교육 프로그램'은 성신여대가 시작한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의무교육으로 시행됐다. /한용수 기자

# 조희연 교육감 "초·중·고 수학여행, 북한으로"

북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제안  
전통문화 공동체험·교육기관 탐방 등



조희연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북한 교육당국에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한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초·중·고 학생들의 평양 수학여행과 서울-평양 학생 교원 교류가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13일 북한에서 열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

맞이연대모임'에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 분야 대표자로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다.

이번 모임은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 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조 교육감은 교육 분야 상봉 모임에서 북한 교육당국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남북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제안하는 남북 교육교류사업 내용은 ▲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 탐방 ▲서울-평양 전통문화 공동체험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서울-평양 교육자 공동학술대회 ▲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 ▲서울-평양 학생 예술활동 교류 ▲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 ▲서울-평양 학생이 함께하는 과학어울림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등 10가지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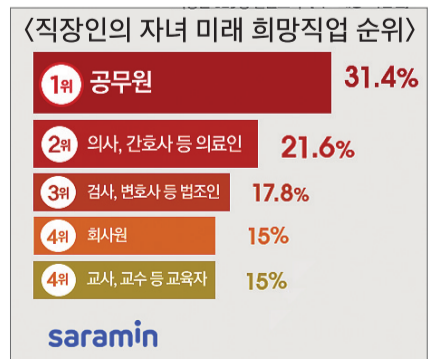
다'고 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소득이 낮은 편이라서'(46.3%)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서'(34.6%),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33.6%), '일 자체가 힘들어서'(26.1%),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없어서'(22.5%), '미래에는 비인기 직업일 것 같아서'(20.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현재 본인의 직업에 자녀가 종사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역시 '공무원'(66.7%)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IT/인터넷 관련 개발자'(46.2%), '디자인'(45.7%), '유통업'(44.8%), '기술직'(44.2%) 등에 종사하는 응답자 순이었다.

# 자녀 희망직업, 의사 제치고 공무원 '1위'

사람인, 직장인 625명 설문

의료인 > 법조인 > 회사원·교육자 순



625명 설문조사.

자료:사람인

어려워지는 취업과 경제불황을 반영하듯 자녀 미래 희망직업 1위에 공무원이 꼽혔다.

11일 사람이인 직장인 625명을 대상으로 '미래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31.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21.6%),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17.8%)이 2, 3위를 차지했고, '회사원'

(15%), '교사, 교수 등 교육자'(15%) 등이 상위권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6명(61.9%)은 '자녀가 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반대하

/한용수 기자